



KORUS Weekly Review

코러스 위클리 리뷰

I. 언론보도 Press

1. 북한 귀순자의 말이 썩은 군대를 보여줘

A North Korean Defector's Tale Shows Rotting Military

The Wall Street Journal | Dasl Yoon, Andrew Jeong | July 4

귀순자 노철민은 엘리트 출신 북한군이 주둔하는 국경지대의 부패상에 관해 증언함. 최전방 비무장지대에 파견된 병사였던 그는 동료들이 고위장교들에게 뇌물을 주고 훈련을 회피한 사실을 목격했음. 그는 입대 후 음식을 배급 받지 못해서 체중이 40kg대로 야위어 야생버섯 등을 채집해 섭취했다고 함.

<https://www.wsj.com/articles/a-north-korean-defectors-tale-shows-rotting-military-11593867607?mod=searchresults&page=1&pos=3>

2. 한국, 한국전쟁의 미군 첫 지상전투 70주년을 기념해

South Korea marks 70th anniversary of first US ground battle in Korean War

Stars and Stripes | Matthew Keeler, Kim Gamel | July 5

한국과 미국의 관리들은 5일(일) 한국전쟁 오산전투 70주년을 기념함. 그들은 이 전투가 양국간의 오랜 동맹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언급함. 미국군의 첫 지상전인 오산전투가 중요한 이유는 더 광범위한 국제협정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임.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오산전투에 참전한 유일한 한국군인인 윤승국 예비역 소장에게 경의를 표했으며, 주한미군은 현재 95세인 윤씨를 기리기 위해 캠프 험프리스 출입구의 명칭을 변경했음.

<https://www.stripes.com/news/pacific/south-korea-marks-70th-anniversary-of-first-us-ground-battle-in-korean-war-1.636400>

3. 북한, 미국에 대한 무언정책을 재언해

North

Korea Reiterates its Silent-Treatment Policy Toward US

Military.com | Tim Balk | July 5

북한은 트럼프행정부가 "핵 협상 타개에는 관심이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4일(토) 미국독립기념일에 발표함. 최설희 북한외무성 제1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북한의 무언정책(無言政策)을 강조하고,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도구"로만 본다면서, 미국과 협상의 효과는 전혀 없다고 언급함.

<https://www.military.com/daily-news/2020/07/05/north-korea-reiterates-its-silent-treatment-policy-toward-us.html>

4. 북한, 미국외교관이 서울을 방문하는 동안 대화를 배제해

North Korea Rules Out Talks, as US Diplomat Visits Seoul

Voice of America | William Gallo | July 6

스티브 비건 국무부부장관이 북핵관련 회담의 진전방안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위해 한국시간 7일(화) 방한함. 북미정상회담을 주선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에 여전히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북한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고 한국의 "참견"에 대해 비난함.

<https://www.voanews.com/east-asia-pacific/north-korea-rules-out-talks-us-diplomat-visits-seoul>

5. 미국의 소기업대출로 수백만달러를 수령하는 기업 가운데: 한국의 최대 항공사

Among companies getting millions in U.S. small business loans: South Korea's biggest airline

CNBC | Leslie Josephs | July 7

한국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미국법인이 COVID-19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500~1,000만달러 규모의 연방소상공인 대출 수백만 건을 수령한 것으로 미국연방정부의 자료에 나타남. 이는 트럼프행정부가 공개한 급여보호프로그램 최대 대출자의 명단에 따른 것으로서, 미국법인의 대변인은 대한항공이 약500명의 직원을 미국에 두고 있고 이 기금은 회사운영 및 급여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https://www.cNBC.com/2020/07/07/among-companies-getting-millions-in-ppp-loans-korean-air.html>

6. 한국내 미국독립기념일 해변파티에서 난동부린 혐의를 받은 미군들

US troops accused of

wreaking havoc at July Fourth beach party in South Korea

Stars and Stripes | Kim Gamel, Yoo Kyong Chang | July 7

주한미군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미군들이 4일(토) 한국의 부산 해운대에서 불꽃놀이를 포함한 파티를 하면서 소란을 일으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함. 이날 현지주민의 민원이 70여건에 달해 경찰 200여명이 이들을 해산시킴. 사령부는 해당 군인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https://www.stripes.com/news/pacific/us-troops-accused-of-wreaking-havoc-at-july-fourth-beach-party-in-south-korea-1.636586>

7. 한국, 대유행으로부터 회복되면서 경제난에 직면해

Korea Faces An Economic Fork In The Road As It Recovers From The Pandemic

Forbes | Yuwa Hedrick-Wong | July 8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이후 세계 경제성장의 갈림길에서, 최저임금제 등으로 기업투자를 위축시킨 실패한 길을 고집할 수도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성공할 수도 있음. 한국은 최근 "문화수출"의 증가 등 서비스산업에서 강점을 보이는데, 한국의 주요 아시아 무역상대국들 간에 새로운 전망이 열리고 있음.

2018년 문화수출의 가치가 전통적 수출의 중추인 가전수출을 앞질렀음. 또한 2018년 53%에 그쳤던 한국의 낮은 여성노동참여율은 사회적으로 부당함은 물론 낭비되는 경제자원을 대변하므로 이를 해결해야 함. 잘 교육되고 기업가적인 여성들이 문화수출을 포함한 서비스분야에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음.

<https://www.forbes.com/sites/yuwahedrickwong/2020/07/08/korea-faces-an-economic-fork-in-the-road-as-it-recovers-from-the-pandemic/#4d6eec6e3bf1>

8. 서울시장, 괴롭힘으로 고소된 후 숨진 채 발견돼

Seoul

Mayor Is Found Dead After Harassment Complaint Is Filed

New York Times | Choe Sang-Hun | July 9

한국에서 두 번째로 유력한 공직자이자 잠재적 대선후보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 이는 그의 비서가 2017년부터 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소한 데 따른 것임. 박시장은 불평등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비판자로 명성이 자자했으며,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해 강경한 적대자로 알려져 있었음. 그는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에 가장 공격적으로 대처한 지도자 중 일인이었음.

<https://www.nytimes.com/2020/07/09/world/asia/seoul-mayor-dead.html>

9. 새 위성영상, 북한의 의심 핵시설 활동을 보여줘

New satellite imagery shows activity at suspected North Korean nuclear facility

CNN | Zachary Cohen | July 9

CNN이 새로 구한 인공위성 영상에서는, 예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이 핵시설로 의심하고 있는 북한의 한 시설에서 최근 활동하는 모습이 보임. 이 시설은 평양주변 원로리라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음.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 없으나,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연관이 있고 계속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 짐.

<https://edition.cnn.com/2020/07/08/politics/north-korea-nuclear-facility-wollo-ri-satellite-images/index.html>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

1. 한미동맹의 해체

The Unraveling of the U.S.–South Korean Alliance

Foreign Affairs | Sue Mi Terry | July 3

미국의 아시아 방위전략의 오랜 기반인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음. 트럼프대통령은 동맹관계를 중요시하지 않고 진정한 비핵화보다는 언론에서의 성공적 평가와 업적을 중시함. 자유시장 및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을 공유하는 동맹의 기초는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었음.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함. 이와 같은 태도는 한국민으로 하여금 한미관계 유지에 따른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품도록 만듦.

트럼프는 이미 한국안보를 훼손했음. 북미대화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트럼프의 일방적 결정들은 특히 한국 보수주의자들 및 군부의 비위를 거슬리도록 했음. 이런 독단적 행동들은 한국이 안보를 위해 여전히 미국에게 의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듦. 트럼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과 미국을 분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큰 도움을 줌. 한미동맹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이후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음.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north-korea/2020-07-03/unraveling-us-south-korean-alliance>

2. 한국의 긴장: 불확실한 시기에 예기치 않은 정지

Korean

Tensions: An Unexpected Pause in an Uncertain Time

CRISIS | Duyeon Kim | July 7

비록 남북한간 마찰의 소지가 남아있지만, 북한이 남한에게 수주간 가해오던 위협을 6월24일 갑자기 중단했음. 한반도의 긴장은 미국대선 전의 불확실한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현상황을 유지하거나 고조시킬 수 있음. 한국, 중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이 불확실한 시기에 안심하지 말고 북한이 취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함. 북한의 행동이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협상으로의 전환과 무력도발이라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음. 북한은 트럼프대통령의 재선을 선호하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위기가 되는 행동을 자제할 수도 있음. 그러나 국내의 정치적 목표 등을 위해 무기실험과 같은 도발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

따라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행동할 빌미를 제공하는 행위를 피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준비태세와 핵억지력을 유지하고 협상진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섬세한 행동이 필요할 것임. 즉 트럼프행정부는 유엔제재를 의식해 외교에 대한 관심을 계속 표명해야 함. 중국을 비롯해 대북 영향력 및 한반도 안정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계속 촉구해야 함. 또한 북한이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계산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특히 북한의 행동이 거칠어지면 합동군사훈련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함.

<https://www.crisisgroup.org/asia/north-east-asia/korean-peninsula/korean-tensions-unexpected-pause-uncertain-time>

3. “위안부들”이 일본제국군을 위해 싸우도록 강요되었던가?

Were “Comfort Women” Forced to Fight for the Imperial Japanese Army?

The Diplomat | Cristian Martini Grimaldi | July 8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인도의 몇몇 목격자들은 코히마 전투 중 일본군 사이에 있었던 여성들을 기억하고 있음. 언론인 Cristian Martini Grimaldi는 인도 코히마 지역에서 노인들과 회견하다가, 제2차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일본간의 충돌이 있었던 임팔-코히마 전투에서 “무장한 여성들을 포함한 일본군이 있었다.”는 증언을 들었음.

그의 연구에서는 당시 전투에 여군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을 가졌으나, 도쿄외국어대학교의 후지이 다케시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이들이 한국에서 온 “위안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후지이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군이 이미 패전을

예상했기 때문에 위안부들이 군대에 투입되도록 하였다고 함. 만약 위안부들이 즉흥적인 군인으로서 전투에 강제로 투입됐다면, 이와 같은 착취는 지난 수년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군인들의 강제적인 “육체적 오락”을 훨씬 뛰어넘는 일임.

<https://thediplomat.com/2020/07/were-comfort-women-forced-to-fight-for-the-imperial-japanese-army/>

사단법인 한미협회

03150 서울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9호

81 Sambong-no, Suite 809, Doosan We've Pavilion, Jongno-gu, Seoul 03150, Korea
Tel: +82-2-730-1181/2, Fax: +82-2-730-1180, Email: koramas@naver.com